

세미나 |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 지급여력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

노건엽(보험연구원 연구위원)

2021.07.13.

# 목 차

I. 국내 지급여력제도 변화

II.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III. 미래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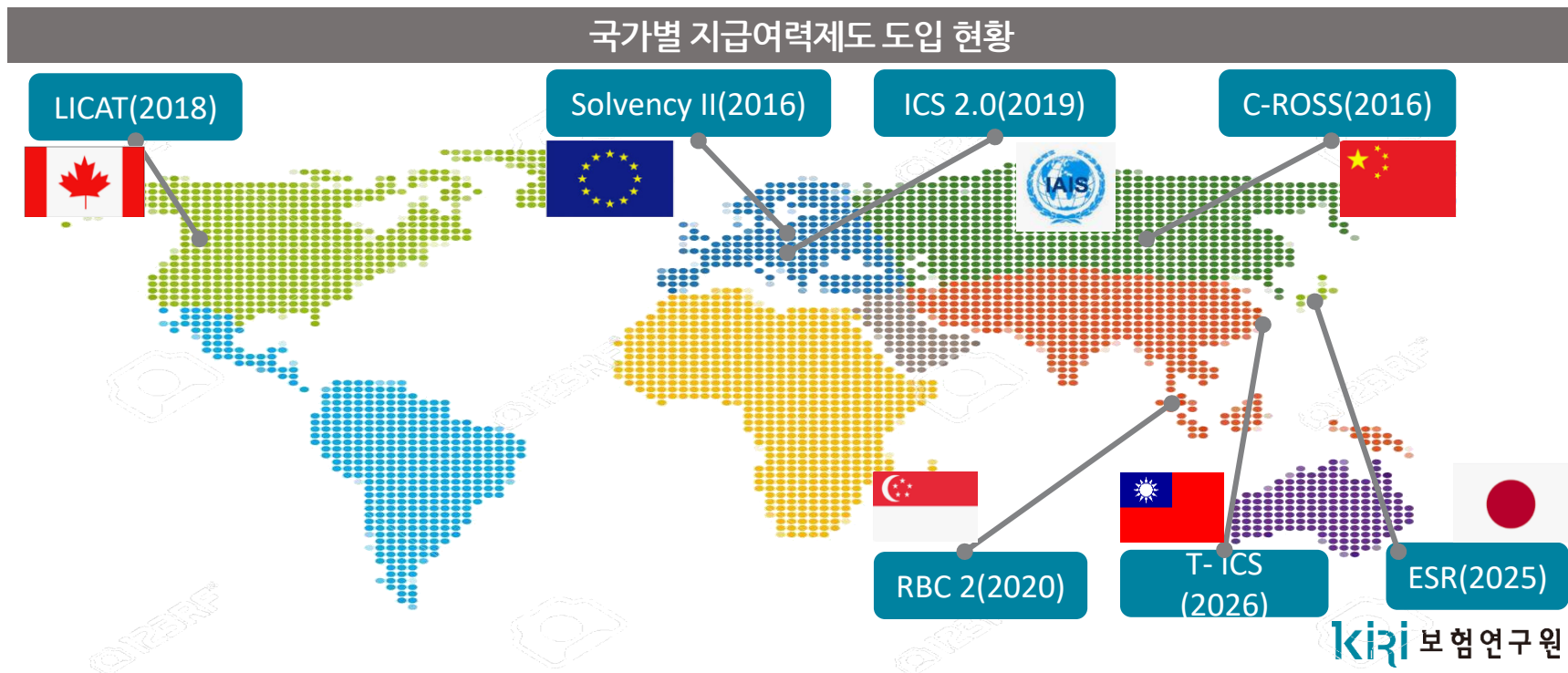
IV. 맺음말

I

# 국내 지급여력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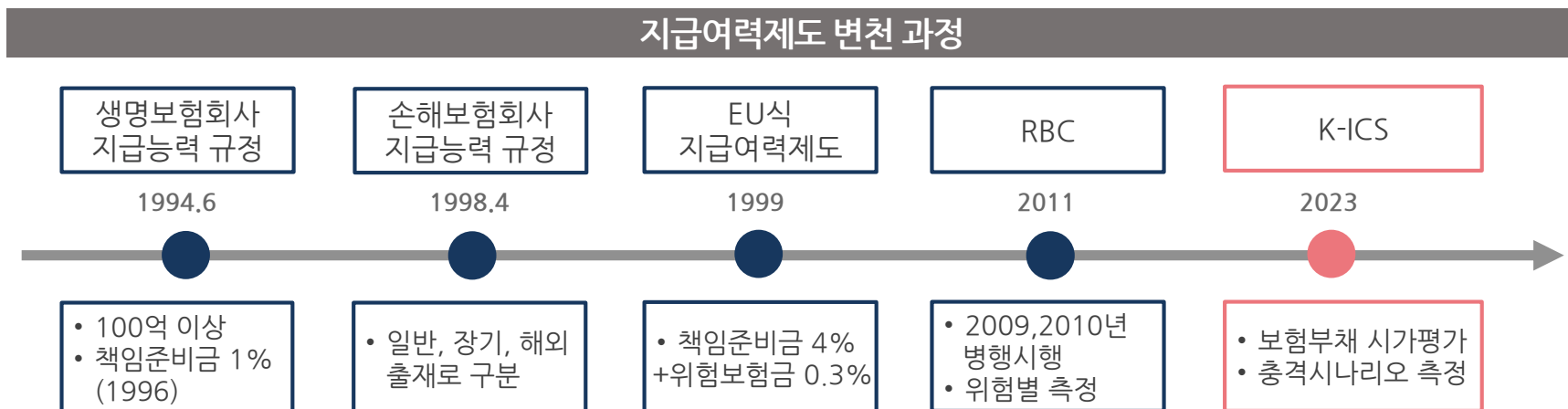
# 1. 해외 지급여력제도 현황

- 해외는 부채시가평가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음
  - 유럽 Solvency II, 중국 C-ROSS는 2016년, 캐나다 LICAT은 2018년에 도입하였고 국제보험감독자 협의회(IAIS)는 ICS 2.0을 2019년에 발표하고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함
  - 싱가포르 RBC2는 2020년 도입하였으며 일본은 2025년, 대만은 2026년을 목표로 준비 중임



## 2. 국내 지급여력제도 도입과 변화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는 1994년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시작되고 손해보험회사는 1998년 제도가 도입됨
- 1999년 EU식 지급여력제도 도입 이후 2011년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RBC, 2023년 시가 기준 지급여력제도 K-ICS가 도입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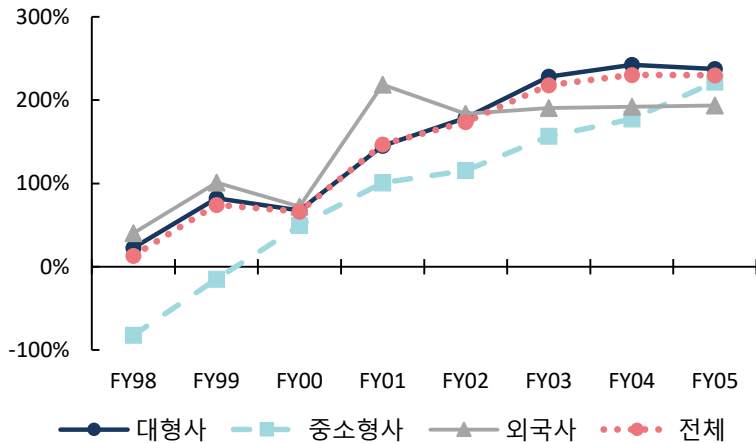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01); 보험업 감독규정

# 3. EU식 지급여력제도

-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일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함
  - 지급여력기준금액에서 6.25%~100%를 1999.9월부터 2004.3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함
-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보험리스크와 자산운용리스크로 구분하였으나 자산운용리스크를 책임준비금의 4%로 산정하여 보험회사별 자산운용 특성에 따른 리스크 차이를 반영 못함
  -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자산 위험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100억의 자본을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수익추구를 위해 투기등급 회사채나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음

생보사 EU식 지급여력비율 추이



자료: 금감위-금감원 보도참고자료(2006.9.19)

생보사 지급여력 변동 구성비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전체
이익잉여금	36%	42%	54%	39%
유상증자	20%	49%	45%	26%
자본조정	24%	0%	1%	19%
후순위채	2%	0%	0%	1%
기타	18%	10%	0%	15%

자료: 금감위-금감원 보도참고자료(2006.9.19)

# 4. RBC 제도

##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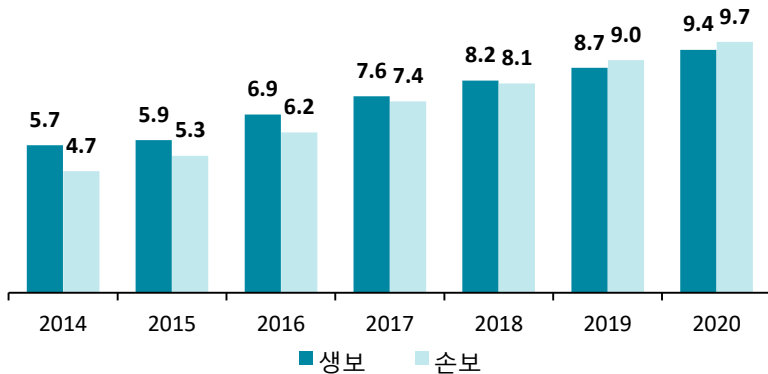
- ALM 위주로 보험회사 자산운용이 변화하고 위험에 기반한 경영관리가 정착됨
- 파생상품, 공동재보험 등 다양한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함

- 자산은 시가,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는 비대칭성으로 RBC 비율의 신뢰성 저하
-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등 변화된 환경의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해 리스크가 과소 평가될 수 있음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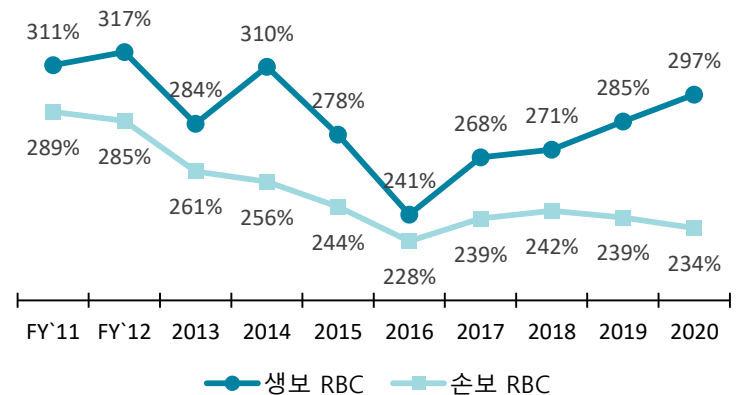
자산듀레이션 추이

(단위: 년)



자료: 보험동향, 각사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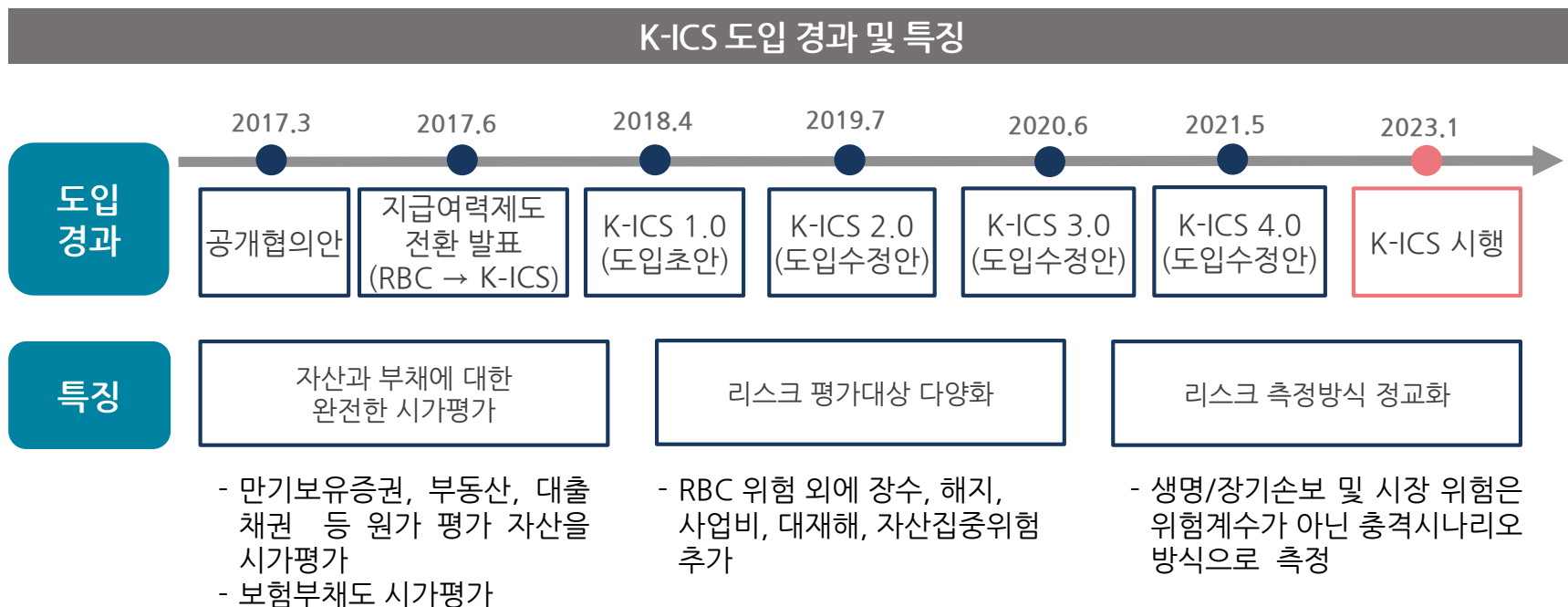
RBC 비율 추이



자료: 금융통계월보

# 5. K-ICS 도입 경과 및 특징

- RBC에서 K-ICS로의 전환을 `17년 6월 발표하고, 현재 K-ICS 4.0 기준 제시 및 영향평가 진행 중임
- K-ICS의 주요 특징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완전한 시가평가”, “리스크 평가 대상의 다양화”, “리스크 측정방식의 정교화 ” 가 있음





## 6. 문제의 제기

-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지급능력 유지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필요함
- 국내 지급여력제도는 주로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및 파산 방지에 주력하여 정량적 평가지표인 자본규제위주로 제도가 변화하였음
- 하지만, 최근의 지급여력제도는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 또한, 자본규제제도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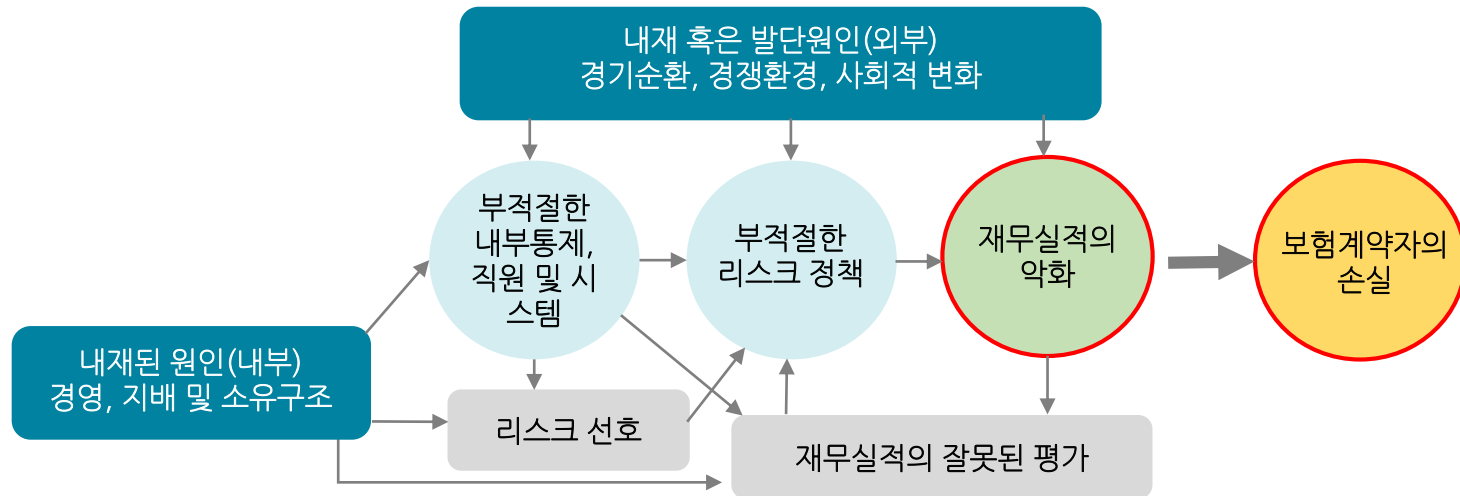
# II

# 선행 연구 및 해외 사례

# 1. 선행 연구

- Sharma(2002), “Prudential Supervision of Insurance Undertakings”
  - Solvency II Project의 출발점이 된 보고서로 위험민감도가 높은 요구자본과 시가평가를 적용한 가용자본 산출이라는 자본규제 개편을 제안함
  - 다만, 정량적인 지급여력규제는 어느 정도 부실이 진행된 상황에서야 작동이 가능하므로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인과 사슬 각 단계별로 적절한 감독방안 수립이 필요함

Risk Map



# 1. 선행 연구

- Doff(2008), “Prudential Supervision of Insurance Undertakings”
    - 보험회사가 위험관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규제수단임을 강조함
  - 보험동향(2003), “리스크 중심 감독의 전개 방향에 대한 검토”
    - 국제적 정합성에 따른 규정 정비와 리스크 공시 기준의 정착으로 리스크관리수준 제고가 필요함
  - 정신동(2013), “솔벤시 II와 RBC 제도의 비교분석”
    - 보험부채 평가, 리스크 분류 및 측정,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제도, 보고 및 경영공시 등 국내 RBC 제도가 솔벤시 II 기준을 참조하여 개선이 필요함
  - 조재린·김해식·김석영(2014),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정량평가는 위험 민감도를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정성평가가 강화되어야 함
- ⇒ 미래의 지급여력제도는 시가평가에 기반하고 위험 민감도를 높이면서 정성평가도 중요함

## 2. 해외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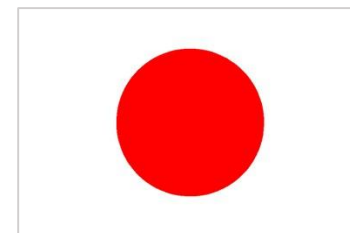


「Solvency II 개정에 대한 공개협약안」  
유럽 보험연금감독청(EIOPA)

- 2016년 Solvency II 시행 후 이슈 검토 보고
- 이해관계자의 의견 검토 및 공시 후 EC 제출

- 2025년 시행 목표
- 내부모형 활용 등 ORSA 개선 강조
- 보험회사에 대한 규율과 지배구조 강화 기대

「경제가치기반 지급여력제도 도입 보고서」  
일본 금융청(JFSA)



「지급여력규제 현대화작업(SMI)」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

- ORSA 2015년부터 시행
- 경영의사결정의 일환이자 감독당국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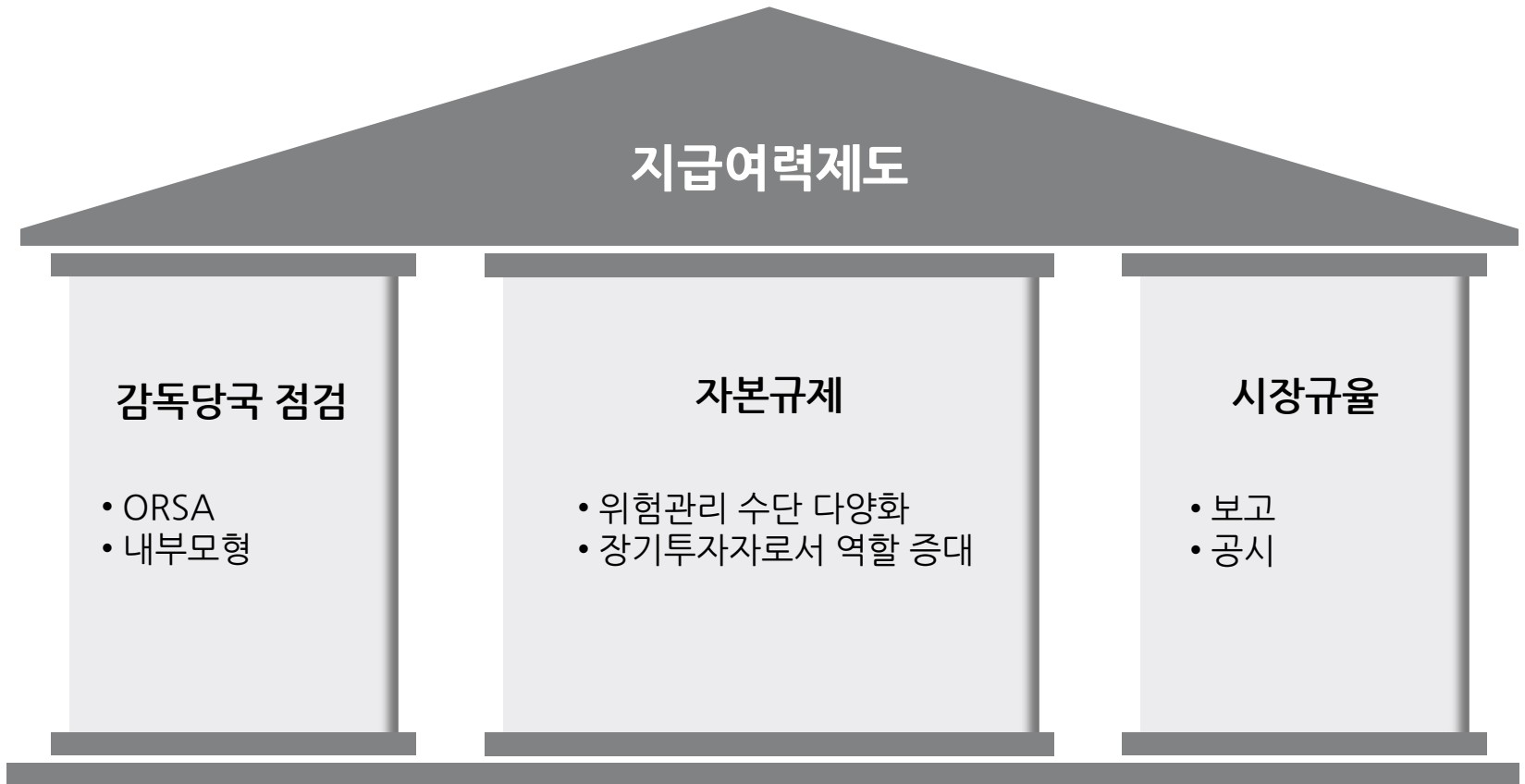
III

## 미래 발전 방향

# 1. 지급여력제도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 할까 ?

- 자본규제는 보험회사가 영업상 노출된 리스크에 대비하여 최저수준의 순자산을 보유토록 함  
⇒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No !
- 현재는 개별 보험회사의 실질보다는 비교가능성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부여함
  - 1) 모든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 2) 개별 보험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3) 보험회사 위험관리 **유인**이 충분하지 않음
- 3 pillar approach = 자본규제(1 pillar) + 감독당국점검(2 pillar) + 시장규율 (3 pillar)
  - 감독당국 점검은 **개별** 보험회사가 **자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영업상 직면한 **모든** 리스크에 대해 **적정수준**의 순자산을 보유토록 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능력 향상을 **촉진**함
  - **시장규율**은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참가자에게 정보 제공하여 보험회사가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 제공함
- 장기적으로 원칙중심의 보험 자본건전성제도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함
  - 비교가능성과 경제적 실질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원칙 중심**으로 전환 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경영자, 감독자, 시장참가자가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됨

## 2. 방향에 대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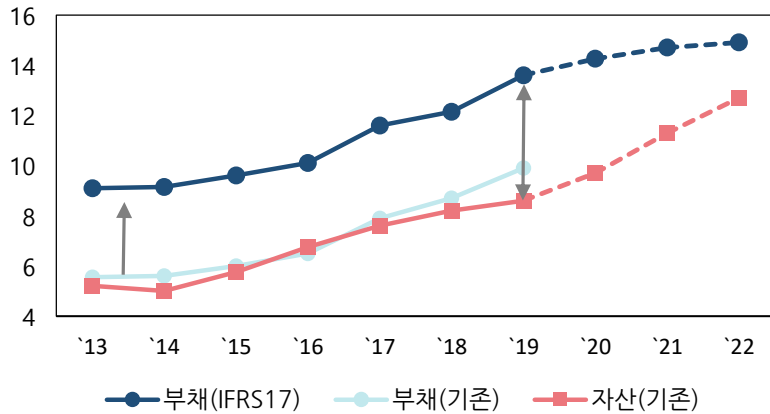


# 3. 위험관리 수단 다양화

- 위험관리 수단을 다양화하여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금리위험은 직접적인 장기채 매입 외에 선도채권, 이자율 스왑 등 파생상품 활용 또는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신용위험은 담보, 보증, 신용파생 등 활용할 수 있음
  - 계약 이전, 계약 재매입 등을 통한 보험부채 구조조정으로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필요함
  - 위험관리 수단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충분한 경과조치, 병행시행 등도 고려할 수 있음

보험회사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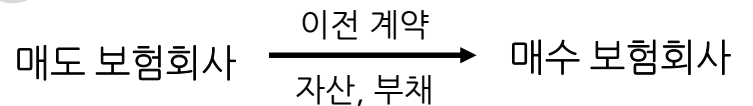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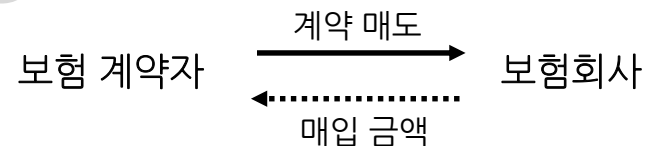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20)

계약 이전 및 계약 재매입

## 계약 이전



## 계약 재매입



자료: 노건업(2020), "보험부채 구조조정을 활용한 자본관리"

## 4. 장기투자자 역할 증대

- 장기투자자로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 변화를 자본규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뉴딜펀드 등을 통한 인프라 투자, 시장 안정을 위한 주식 장기투자, ESG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보험회사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도록 지급여력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 운용자산 구성 비율				
구분	보험산업			
	2010	2020	차이	
운용자산(조 원)	392.0	1,047.2	655.2	
공공(%)	41.2	38.0	△3.2	
민간 (%)	주식	6.8	7.1	0.3
	채권	31.0	28.5	△2.5
	기타	15.1	13.6	△1.5
외화유가증권(%)	6.0	12.8	6.9	

주: 운용자산은 금액, 그 외 항목은 전체 운용자산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식 충격시나리오 (Solvency II)					
Type 1	Type 2	장기 주식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	회사
39%	49%	22%	22%	30%	36%

주: Type 1은 EEA 또는 OECD 상장 주식, Type 2는 Type 1 이외 국가 상장 주식, 비상장주식, 기타대체투자 등  
 자료: EIOPA(2019), "Consultation Paper on the Opinion on the 2020 review of Solvency II"

주식 충격시나리오 (K-ICS)				
선진시장 상장	신흥시장 상장	우선주	인프라	기타
35%	48%	4~49%	20%	36%

자료: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 (K-ICS 4.0)

# 5.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는 2017년에 도입되었으며 이사회 및 경영진 책임 하에 자체 모형으로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함
  - 호주 2013년, 미국 2015년, EU는 2016년부터 시행 중이며, 국내 은행은 2008년부터 시행함
- K-ICS 도입에 따른 ORSA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감독당국의 운영 실태 점검 등이 필요함
  - K-ICS만으로는 개별 회사가 내포한 리스크 평가가 충분치 않을 수 있어 ORSA 운영 실태와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ORSA와 지급여력제도(RBC) 비교

		ORSA 제도	지급여력제도 (RBC) <sup>2)</sup>
리스크 통제		이사회, 경영진의 책임	-
리스크 평가	측정모형	보험회사 자체모형	RBC 표준모형
	중요 리스크	계량 및 비계량(법률·평판 등)을 포괄하여 회사가 자체 선정	계량리스크 중심
지급여력 평가 (자본적정성)		$\frac{\text{지급여력금액}}{\text{필요자본}^1}$	$\frac{\text{지급여력금액}}{\text{RBC 요구자본}^1}$
평가결과 보고		회사 이사회 보고(승인)	감독당국 보고

주: 1) RBC는 법규에 근거, ORSA는 경험치 등을 활용한 자체 모형으로 리스크 산출  
 2) 지급여력제도(RBC)는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 전면 개정시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대체  
 자료: 금융위, 금감원 보도자료 (2018.12.13)

ORSA 시행시기별 현황

구분	생보사	손보사	도입비율(누적)
2017년	4개사	7개사	20.8%
2018년	-	3개사	26.4%
2019년	5개사	3개사	41.5%
2020년	1개사	1개사	45.3%
2021년	12개사	2개사	71.7%
미확정	2개사	13개사	100%
계	24개사	29개사	

자료: 금융위, 금감원 보도자료 (2018.12.13)

## 6. 내부모형

- K-ICS 제도에 적합한 내부모형 도입으로 회사 리스크 특성을 자본규제에 반영할 수 있음
  - 유럽은 전체 회사의 6%, 보험그룹 기준 10%가 내부모형을 도입하였으며 국내 은행은 대부분 내부등급법을 도입하고 있음
  - 2012년 “보험회사 내부모형 승인제도 매뉴얼”을 제시하고, 2020년 6월 RBC 금리 위험액에 대한 내부모형 승인기준을 마련함

Solvency II 내부모형 도입 현황

구분	표준	부분 내부	완전 내부	합계
생명보험	14%	1%	0%	16%
손해보험	17%	1%	1%	18%
생손보 겸업	51%	2%	1%	54%
재보험	12%	0%	1%	12%
합계(2,458개사)	94%	4%	2%	100%
보험그룹(282개사)	90%	9%	1%	100%

자료: EIOPA(2020)

은행 바젤 III 내부등급법 도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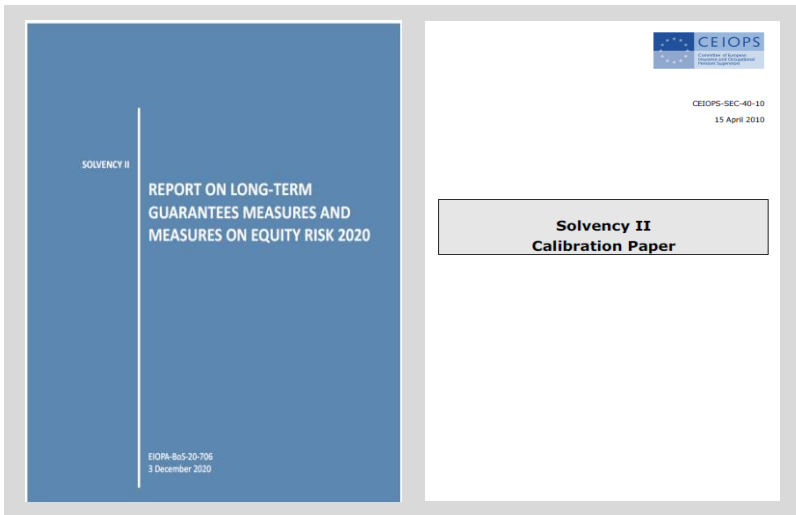
연도	2016	2017	2019	2020
은행명	신한 KB 하나	농협 부산	우리 대구	경남 광주

자료: 각사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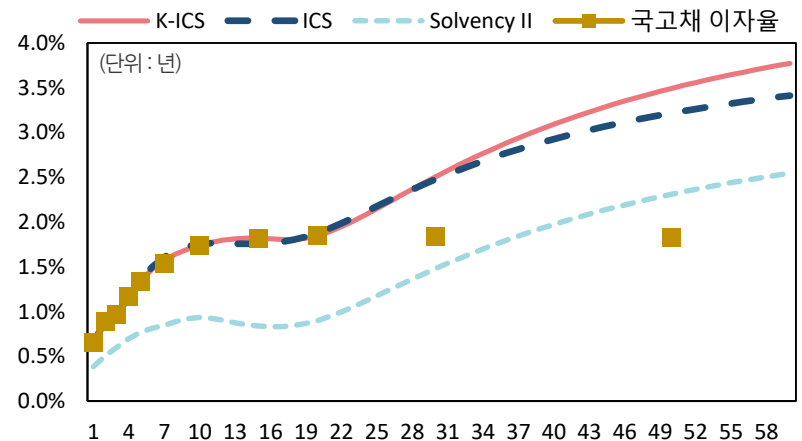
# 7. 보고 및 공시 (1)

-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자본규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및 보고하고 결과를 공시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경과조치 등에 따른 자산운용, 상품 개발, 소비자 보호, 경쟁도 등 미치는 영향을 보고함
  - 감독당국은 국내 보험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제도(할인율, 금리리스크 모형 등)와 국제적 정합성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도입 이후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한편, 충격시나리오와 위험계수 산출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제시하여 복원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IOPA 문서



할인율(Spot rate) 비교



자료: K-ICS 4.0; ICS 2020 FT; EIOPARFR

# 7. 보고 및 공시 (2)

- 보험회사의 지급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공시된다면 시장의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함
  - 유럽 보험회사는 경과조치 전 후 지급여력비율, 내부모형 사용 현황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보고서 (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를 발간함
  - 또한 EIOPA는 Solvency II 계량영향평가, 일본 금융청은 신지급여력제도 계량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시하고 유럽 일부 보험사는 ICS Field Test 결과를 공개함
  - 한편, 국내 은행은 자기자본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정보가 시스템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

CONTENT	
<b>Executive Summary</b>	<b>3</b>
<b>A Business and Performance</b>	<b>5</b>
A.1 Business	6
A.2 Underwriting Performance	8
A.3 Investment Performance	12
A.4 Performance of Other Activities	14
A.5 Any Other Information	15
<b>B System of Governance</b>	<b>16</b>
B.1 General Information on the System of Governance	17
B.2 Fit and Proper Requirements	33
B.3 Risk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34
B.4 Internal Control System	40
B.5 Internal Audit Function	44
B.6 Actuarial Function	45
B.7 Outsourcing	46
B.8 Any Other Information	49
<b>C Risk Profile</b>	<b>50</b>
C.1 Underwriting Risk	55
C.2 Market Risk	58
C.3 Credit Risk	60
C.4 Liquidity Risk	62
C.5 Operational Risk	63
C.6 Other Material Risks	64
C.7 Any Other Information	66
<b>D Valuation for Solvency Purposes</b>	<b>67</b>
D.1 Assets	71
D.2 Technical Provisions	78
D.3 Other Liabilities	86
D.4 Alternative Methods for Valuation	92
D.5 Any Other Information	93
<b>E Capital Management</b>	<b>94</b>
E.1 Own Funds	95
E.2 Solvency Capital Requirement and Minimum Capital Requirement	105
E.3 Use of the Duration-Based Equity Risk Sub-Module in the Calculation of the Solvency Capital Requirement	106
E.4 Differences Between the Standard Formula and Any Internal Model Used	107
E.5 Non-Compliance With the Minimum Capital Requirement and Non-Compliance With the Solvency Capital Requirement	113
E.6 Any Other Information	114
<b>Appendix</b>	<b>115</b>

## 시스템 구성 예시 (은행, 보험)

✓	코드	항목명
✓	A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A1	기본자본비율
✓	A2	보통주자본비율
✓	B	자기자본합계
✓	B0	보통주자본
✓	B1	기본자본
✓	B2	보완자본
✓	B3	공제할목
✓	B30	보통주자본 공제할목
✓	B31	기본자본 공제할목
✓	B32	보완자본 공제할목
✓	C	위험가중자산합계
✓	C1	시장리스크기준
✓	C2	신용_운영 리스크기준

✓	코드	항목명
✓	A	지급여력비율(①/②)
✓	B	지급여력금액(①)
✓	C	지급여력기준금액(②)

IV

맺음말

## 맺음말

- 재무건전성이 보험회사 경쟁력의 척도로 작용할 것임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It's only when the tide goes out that you discover who's been swimming  
naked.

- by Warren Buffett -



감사합니다.